

합니다. 이것이 재판정이라면 바리사이와 사람이 원고(原告)이고, 세리는 피고(被告)입니다. 그는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세리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때 유다 사회의 상황에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선고입니다.

그러나 단지 무죄만 선고한 것이 아닙니다. ‘옳다 함을 받았다’는 원뜻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에게 용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유다 사람이 전부 죄인으로 규정하고 침을 뱉는 그들! 더러운 놈이라고 치부되고, 그래서 그의 헌금마저도 거부하는 그들을 예수는 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의 사견(私見)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선언은 그에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감상(感想)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즉 하느님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의인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오! 하느님!”

이 살을 찢고 나오는 절규에 대해서 예수는 팔을 벌리고 그를 품어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언한 것입니다.

3) 부자의 돈과 과부의 돈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가 와서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렘톤’ 두 톨, 곧 한 ‘코트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궤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마르 12, 41~44; 병행 루가 21, 1~4).

예수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거둬 농부나 어부, 촌부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듣고 그것을 소재로 삼았거나 아니면 예수가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다는 짐작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만은 직접 예수가 목격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비
 유가 아니라 이중의 목격담입니다. 한 눈은 예수 행태를 주목하는
 눈이고 또 한 눈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예수의 눈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성전에서 행동하는 예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전 내부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이상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간
 과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외곽 사이에 또 하나의 장
 벽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들어가는 문은 잘 꾸며져 있어서인지 ‘아름
 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담벽으로
 막힌 성전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
 니다.

헌금은 성전을 가꾸고 사제계급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자원이었
 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당국은 헌금량으로 사람의 경건성(신앙)을
 측정하는 잣대로 삼았습니다. 많이 내면 낼수록 축복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으며, 성전의 당사자들은 헌금을 낸 양만큼 그 사람을 대접했
 습니다. 헌금케가 여기저기 놓여 있는데 자기 신분을 내세우는 사람
 들은 그에 걸맞게 많은 돈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냈

습니다.

예수는 “헌금케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케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눈이 헌금케를 지켜보는 예수의 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깊은 생각에 잠긴 우울한 눈이었거나 감추고 숨긴 속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칼끝 같은 예리한 눈초리였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로마 돈을 보라는 듯이 소리를 내며 헌금케에 넣는 것을 보는 예수는 헌금액수보다는 헌금하는 자의 마음을 쏘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액수를 주목하면서 그가 가졌을 만한 재산의 몇 천, 몇 만분의 일이나 되나 하는 생각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손을 얼마 동안 지켜보던 예수는 성전 밖에 여자들이 모인 이른바 ‘이름다운 문’의 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13개의 헌금케가 적당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위주의 사회에서 모두 천대받는 존재들이지만 거기 모인 여자들 사이에도 신분이나 집안 사정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헌금케가 놓인 맞은편에 앉아 헌금하는 여인들의 손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한 여인들인지라 양으로 보아 남자들의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헌금의 양이 그 신분을 나타내듯이 여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눈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친 몰골이 가난에 찌든 한 여인네가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눈빛은 갑자기 전과 달라지며 그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홀로 가정을 지탱해나가거나 그 날 그날 하루 끼니 마련에 시달리며 고생하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편이 있다면 저렇게까지 초라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여자를 ‘과부’라고 했습

니다. 그녀에게 물어서 안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습에서 읽은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과부’라고 단정한 말은 과부임에 틀림없다고 고쳐 읽어도 될 것입니다.

저런 여자가 무얼 하려고 헌금궤 앞으로 갈까? 아무리 보아도 끼니를 많이 걸러서 얼굴이 누렇게 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여자는 돈 두 톤(렙톤)을 조심스레 끄집어내어 두 손 모아 헌금궤에 바쳤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임을 한눈에 보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희랍의 제일 적은 돈의 단위인 두 ‘렙톤’이라면 로마의 제일 작은 동전인 한 ‘코트란트’에 해당되는데, 두 ‘렙톤’으로는 겨우 1리터도 못 되는 밀을 살 수 있는, 글자 그대로 ‘푼돈’입니다. 이 따위 푼돈이 성전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푼돈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시하듯, 이 여자의 존재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눈만은 그와 정반대로 그날 부자들이 바친 모든 헌금보다 더 큰 무게를 이 푼돈에 주었으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비중보다 이 여자의 존재를 더 높이 샀습니다.

이러한 풀이는 헌금궤를 주목하는 예수의 그 눈을 주목한 눈에 반영된 예수를 헤아린 것입니다. 헌금궤가 보이는 맞은편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응시하던 예수는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본 다음 자리를 옮겨 제자들과 마주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궤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모두 넉넉한 데서 넣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넣었으니,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마르 12, 43~44; 루가 21, 3~4).

여기서 또 한 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판결문을 읽듯 하는 예수의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바리사이파와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세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갔다’고 선언하던 그것과 꼭 같은 판정입니다.

어떤 학자가 공판서를 연구하고는 예수 자신은 ‘신’이라는 생각은 물론 ‘메시아’라는 의식조차 한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합니다. “예수는 마치 자신이 하느님이기라도 하듯 하느님의 전권자라도 된 듯 단호한 권리를 가지고 선언하고 행동했다”고.

확실히 예수의 판정기준은 일반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책감도 없이 자기의 생을 자랑할 수 있고 자선도 하여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금식을 두 번씩이나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스스로 자책하여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말문도 막혀 “오!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비명 같은 한마디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을 죄인으로 규정해야 마땅한데 그 기준을 뒤집어 엮은 것처럼, 돈의 가치는 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현금의 가치를 그가 가진 것과 비교해서 판정을 내림으로써 물질적 평가를 물질의 양으로 하지 않고 삶으로 전환해서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예수의 판단은 상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판정은 영원히 진실한 판정입니다. 부자의 현금은 과부의 현금에 비해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으나 그가 가진 재산에서 보면 푼돈에 불과하고, 과부가 바친 두 ‘렘톤’은 부자들이 바친 현금과 비해 훨씬 적으나 돈을 바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삶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즉 예수가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평가한 그 생명 전체를 바친 것입니다. 바울로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과부야말로 푼돈을 현금계에 넣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신의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4) 말만 하는 자와 실천하는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아이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예, 가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둘째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다. 그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그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나?”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둘째아들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앞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었을 때에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마음을 고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마태 21, 28~32).

포도원을 가진 한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맏아들은 이 지시를 듣자마자 싫은 표정이나 주저함이 없이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둘째아들은 맏아들과는 정반대로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차디찬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맏아들에 비해서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